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4, Vol. 27, No. 1, 179-196

한국 3세 아동의 총칭성 이해*

방 지 은 최 영 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총칭 표현(예, 새는 날개가 있다)는 종류에 대한 보편적인 특징을 기술하여 범주에 대한 지식 습득을 돕는다. 선행연구들은 총칭표현의 이해와 사용이 만 4세부터 정교해진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는 영어습득 아동에게 한정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에서 활용되는 총칭 표현의 특징을 실험적으로 검토하고, 총칭표현에 대한 이해가 만 3세 아동에게서도 발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우선 성인들이 보편적인 속성을 묘사하는 문장에서 보이는 형태론적 특징들을 검토하여 한국어 총칭 표현에는 주로 원형 단수 형태와 조사 '은/는'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실험 2에서는 만 3세 아동에게 이러한 총칭 표현을 제시하고, 비총칭 표현에 비해 언급된 범주의 속성을 다른 대상에게 확장시키는지를 검토하였다. 실험 결과, 만 3세 아동은 총칭 표현의 대상이 다수인지 소수인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편적 속성을 추출하고 확장하였으며, 예외적인 경우(예, 새는 날지만 이 새는 못 난다와 같이)가 함께 제시되었을 때에도 발화된 표현에서 총칭성을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칭 표현의 이해와 활용이 만 3세부터 정교하게 발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총칭 표현, 총칭성, 총칭 추론, 언어 발달, 개념 발달

---

* 이 연구는 2012년도 중앙대학교 신입생 성적 우수 장학금의 지원 및 2014년 교육부 BK21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방지은(2014)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에서 발전된 것임.
연구를 도와주신 참사랑 어린이집, 연화 어린이집, 스웨첸 어린이집, 상도 어린이집 교사분들과 아동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성인 발화 결과 분석에 함께 해준 주나래 학생, 어린이집 섭외 도와준 정은주 학생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 교신저자: 최영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E-mail: yochoi@cau.ac.kr

총칭성(genericity) 혹은 총칭 표현(generic expression)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어구를 의미한다(유유현, 2010). 특히, 총칭적인 표현은 한 종류(kind)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종류에 대한 유전적, 영구적, 지속적인 속성에 대한 기술을 담고 있다(Lyons, 1977). 총칭성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종류(kind)에 대한 직접 경험이 제한적일지라도 그 종류의 속성을 학습하며 종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Gelman, Star & Flukes, 2002). 이는 총칭성이 특정한 종류와 그 종류의 본질적이고 주요한 속성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이다(Gelman, 2004; Chambers, Graham & Turner, 2008). 이런 측면에서 총칭성은 어떤 종류를 개념적으로 범주화하고 종류의 일반적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Prasada, 2000). 이를 아래의 구체적 예를 통해 좀 더 살펴보자.

(1) a. Bats live in caves.
(박쥐는 동굴에 산다).
b. This bat lives on the tree.
(이 박쥐는 나무에 산다)

위의 (1a)는 총칭적인 표현으로 'Bats'는 특정한 박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박쥐'라는 종류의 한 범주를 지칭한다. 그리고 '동굴에 산다'라는 특성은 박쥐라는 종류의 보편적인 속성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에 비해 (1b)의 표현은 지시 관형사를 통해 특정 박쥐를 지칭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무에 산다'는 박쥐들의 보편적, 공통적 속성으로 이해되기는 어렵고 지시된 특정 박쥐의 속성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것은 (1a)와 같은 총칭 표현에서 박쥐의 보편적 속성을 추출하여 이해하고 난 후 새롭게 어떤 박쥐를 접하게 되면 그 박쥐를 밀접하게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관찰하지 못하더라도 총칭 표현을 통해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이 박쥐도 동굴에 살 것이라 쉽게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간은 매우 제한적인 사실 관찰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총칭 표현들을 통해 광범위한 사물과 생물의 범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표상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이 짧은 시간 내에 광활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언어적 기제라 볼 수 있다(Prasada, 2000).

총칭적인 표현에는 종류를 지칭하는데 총칭적인 명사구(generic noun phrases: NPs)가 많이 활용된다. 이는 종류-지시 명사구(Kind-referring NPs)라고도 일컬어지며(전영철, 1997; 전영철, 2003), 많은 연구들의 초점이 되는데, 이는 한 종류에 대한 총칭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총칭적 개념이 총칭 명사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Cimpian & Markman, 2008; Gelman, Goetz, Sarnecka & Flukes, 2008).

(2) a. Bats live in caves.
b. The dog has four legs.
c. A bird has hollow bones.
d. Gold is valuable.

총칭 명사구는 통사 형태론적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영어에서는 총칭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무한정사 복수형태(bare plural, 2a), 정관사 단수형태(definite singular, 2b), 부정관사형태(indefinite article, 2c), 불가산 명사(mass noun, 2d)의 형태 등이 활용되며 이와 더불어 수(number), 시제(tense), 상(aspect) 등의 단서들도 활용된다(Gelman, 2004; Hollander, 2002). 그러나 이 중에서도 영어의 총칭성에서 가장 대표

적인 형태로 자주 나타나는 것은 무한정사 복수 형태라고 한다(박기성, 2000).

영어 습득 연구들은 아동들이 학령전기부터 다양한 단서를 활용하여 총칭성을 구분한다고 한다. 예컨대, Gelman과 Raman(2003)은 만 2세경부터 'the'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총칭성을 구분하기 시작한다고 보고하였고, 만 3세경부터는 화용론적 단서(예, 제시되는 동물의 수)를 활용하여 총칭성을 변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3, 4세 아동은 사회적 상황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을 동원하여 총칭성을 구분하기도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새는 배속에 돌이 있다.'는 말을 수의사가 할 때, 도서관 사서가 동일한 말을 할 때 보다 더 총칭적으로 이해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Cimpian & Markman, 2008).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연구 결과는 만 2, 3세가 되면 낯선 사물이나 생물체를 접했을 때 총칭문을 통해 보편적 속성을 추론해 낼 수 있으며 이를 같은 범주의 새로운 구성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Gelman & Bloom, 2007; Graham, Nayer & Gelman, 2011).

Chambers, Graham과 Turner(2008)은 만 4세경에는 이러한 추론 능력이 매우 정교하고 강력하게 발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아이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형태의 대상들(예, pagon이라는 가상의 동물)을 보여주며, 종류의 속성에 대해 총칭적인 표현(예, Pagons are friendly)과 비총칭적인 표현(These pagons are friendly)으로 나누어 각각의 아동에게 언급한 후, 이전에 제시된 대상들과 모양은 동일하지만 색이 다른 대상을 보여주며 동일한 특성을 지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 연구에서 4세 아동은 총칭적인 표현을 들은 경우에만 종류 내 다른 구성원에게는 동일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유추하고 종류를 하나의 범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유추 능력은 제시된 대상의 수가 많은 경우(5마리, 강한 증거 조건)만이 아니라 두 마리만 제시된 경우(약한 증거 조건)에도 나타났다. 이는 4세 아동의 경우 한 두 예제만 접하더라도 총칭 표현을 듣게 되면 이를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범주의 속성으로 이해하고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 연구에서 더욱 놀라웠던 결과는 4세 아동들이 같은 종류이지만 동일한 속성을 보이지 않는 예외적인 대상을 소개하는 과정을 추가하였을 때에도(예, Pagons are friendly, except this pagon, this pagon isn't friendly) 총칭 표현을 들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총칭 표현에서 제시된 특성을 일반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4세 아동은 범주 안에서 속성을 공유하지 못하는 예외를 포함하는 총칭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총칭 표현이 종류에 대한 개념 및 특성을 일컫는 현상은 영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 한국어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Gelman & Tardif, 1998; 전영철, 1997). 총칭문과 비총칭문을 구별하는 문법적인 형태나 특징들은 각기 다를지라도 총칭성의 개념 및 사용은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된다(전영철, 2003).

한국어에서는 총칭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어떠한 통사 형태론적 요소들이 사용될까? 아래 (3a)와 (3b)에 제시된 예처럼(김일웅, 1982에서 가져옴) 영어에서와 유사하게 비총칭적인 표현일 경우에는 '이, 그, 저'와 같은 지시 관형사를 통해 '이 참새'와 같이 대상을 한정지어 제시할 수도 있고, '새 한 마리, 한 여우'와

같이 수(number)를 넣어 한정지을 수도 있다. 총칭 표현의 경우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한국어에서는 원형 단수 형태(bare singulars)가 주로 활용되며(박기성, 2000; 전영철, 2003, 2004) 복수 접미사인 '-들'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전영철, 2004).

(3) a. 개는 유익한 동물이다.
b. 이 개가 사나우므로 조심하시오.

그러나 박기성(2000)과 전영철(2003)은 한국어의 총칭 명사구는 대부분 원형 단수 형태(bare singulars)에 조사 '은/는'을 붙인 형태(1a의 예와 같이 '박쥐는...' 처럼)라고 한 반면에(김일웅, 1982; 유유현, 2010도 참조) 전영철(1997, 2004)는 '은/는'과 더불어 주격 표지 '이/가' 또한 총칭적인 문장에서 사용된다고 제안하여 총칭 명사구에 주로 활용되는 조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견해와 분석이 존재한다.

한국어의 총칭적인 표현에 대한 언어학적인 분석은 꽤 이루어지고 있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총칭성의 특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발달적인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총칭성 구별 능력의 발달을 검토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성인들의 유도된 발화의 유형을 분석하여 총칭 표현에서 주로 사용되는 통사 형태론적 요소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확인된 특성을 포함하는 총칭 표현을 제시하였을 때 한국의 아동들도 총칭 표현에서 보편적 특성을 추출하여 이를 같은 범주 내 새로운 구성원에게 확장,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Chambers, Graham과 Turner(2008)과 유사한 연구를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만 4세경에 발달된다고 제시한 정교한 추론 능력이 만 3세경부터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아직까지는 국내외 연구를 통틀어 증거의 강도(예, 제시된 대상의 수)나 예외적 사례의 유무를 넘어 총칭 표현을 통해 범주의 속성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은 3세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세 한국어 습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추론 능력이 4세 이전에도 발달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고 더불어 한국어 습득 3세의 총칭 표현 구분 및 활용 능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3세는 앞에서도 제시했듯이 영어 습득 아동의 경우 이미 정관사의 유무나 화용론적 단서를 통해 총칭 표현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된 연령이다. 그리고 한국어 습득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제시한 한국어 총칭 표현 관련 통사 형태론적 요소들의 이해가 발달된 시기로 나타난다. 주격조사의 발현은 2세 초기 무렵이지만(조명한, 1982) 2세 초반 아동들이 주격조사 '이'를 26%, '가'를 43% 빈도로 발화한데 비해 3세 후반에 이르면 주격 조사 '이'와 '가'의 산출 비율이 각각 80%와 100%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권도하, 정분선, 1999). 더불어 비총칭적 표현에 사용되는 지시 관형사도 30개월을 전후로 출현하여 점차 체언과 함께 나타나 체언을 꾸미는 기능으로 발화된다고 한다(김순자, 김명희, 2005).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습득 아동의 총칭 표현 이해 및 활용 능력을 검토하고 나아가 4세에게서 관찰된 정교한 총칭성 추론 능력이 3세에서도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실험 1-1

실험 1-1에서는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종류의 일반적인 속성을 서술하는 과정을 통해 총칭성의 문법적인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총칭적인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를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인들의 자발적인 발화를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총칭성을 분석했던 이전 여러 논문들과(박기성, 2000; 유유현, 2010) 마찬가지로 조사 ‘-은/는’을 주로 사용하며 원형 단수 형태로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함이었다. 더욱이, 특징들을 다시 확인하고자 함은 주어의 복수 형태나 주격 표지 ‘가’가 활용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전영철, 1997) 있었기 때문에 총칭성의 명확한 일반적인 특징을 재확인하고자 성인들의 총칭적인 발화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생물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속성을 설명할 때에 총칭적인 문장이 사용되기에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도록 하였다(Gelman, 2004).

방 법

연구 대상

본 실험에는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한국어가 모국어인 대학생 10명이 참가하였다. 사전에 동의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분석에는 10명(평균 22.2세, 남=5명) 모두 포함되었다.

실험 과제 및 자극

실험 자극은 같은 종류의 동물들이 보이는 사진을 제시하여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발화를 녹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총칭적/비총칭적인 표현을 발화하는 조건을 피험자 내로 2개 시행씩 총 4회를 진행하였다. 비총칭 조건에서는 ‘앞에 제시된 사진에 보이는 동물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라고 말하여 사진 자극에 한정되어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총칭 조건에서는 ‘앞에 있는 사진 속 동물인 펭귄/사자/올빼미/얼룩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하여 제시된 동물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결 과

자발적 발화를 전사하여 총 문장 수, 명제의 수, 주어의 사용유무, 주어에 사용한 조사의 유형, 총칭/비총칭적인 의미 유무 등의 하위 요소들로 나눠서 각 피험자가 발화한 내용들과 총칭적인 문장에서의 형태를 확인하였다. 모든 문장들 중에서 주어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하고 주어가 포함된 명제들만 살펴보았다(총 195명제 중 136명제). 명제는 문장과 동일할 수도 있으나, 문장 안에서 문장이 지니는 의미가 여러 개로 나뉘는 경우 그 의미에 따라 각 명제로 나누었다.

각각의 통사 형태론적 요소들이 나타나는 빈도를 주어를 포함하는 총 명제 수(136개)를 기준으로 하여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총칭 조건에서의 총 명제 수는 75개였으며, 이 중에 대상에 대한 보편적인 속성을 말하는 경우는 4개뿐이었고 나머지는 사

표 1. 실험 1-1에서 총칭성에 따른 성인 발화에서 관찰된 형태론적 요소의 발화 빈도 및 비율

조건	특징	빈도	%
총칭 조건	조사 '-은/는'	40	29.4
	조사 '-이/가'	30	22.0
	복수 접미사 '-들'	8	5.9
	한정사 및 수식 어구	7	5.1
	수사	35	25.7
비총칭 조건	조사 '은/는'	31	22.8
	조사 '이/가'	28	20.6
	복수 접미사 '-들'	9	6.6
	한정사 및 수식 어구	12	8.8
	수사	19	14.0

진에 보이는 동물의 특징들에 대한 기술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얘는' 또는 '이 펭귄은'과 같이 한정사와 함께 나타나 올바른 총칭적인 표현을 확인할 수 없었다. 비총칭 조건에서의 총 명제는 61개였으며, 2개는 동물의 보편적인 속성을 설명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사진 속 동물의 한정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총칭 조건에서 조사 '은/는'을 사용한 경우는 40개(29.4%), 조사 '이/가'의 경우는 30개(22.0%)였다. 복수형 '-들'이 8개(5.9%)가 나타났고, 한정사(예, 이 동물은, 얘는) 및 수식어구(예, 가장 왼쪽에 있는 부엉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호랑이가)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7개(5.1%), 수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35개(25.7%)였다. 반면, 비총칭 조건에서는 조사 '은/는'이 나타난 경우가 31개(22.8%), 조사 '이/가'는 28개(20.6%)였다. 복수형 '-들'이 9개(6.6%)가 나타났고, 한정사 및 수식어구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12개(8.8%), 수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19개(14.0%)였다. 비총칭 조건에서는 주어를 한정하는 요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세 마리가 풀밭에 앉아있어요.'와 같이 지시 관형사와 수사가 같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논 의

실험 1-1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총칭적인 표현과 비총칭적인 표현을 확인하기 위해 자발적인 발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칭성을 유도한 조건에서의 발화 유형이 비총칭성을 유도한 조건에서의 발화 유형과 통사 형태론적으로 크게 다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우선 사진 자극을 통해 발화를 유발하고자 한 상황이 두 조건에서 모두, 제시된 사진 자극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서 비총칭성을 유발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게다가 모든 참가자에게 비총칭문을 먼저 유발하고 나서 총칭문을 유발하도록 제시 순서가 고정되어 있었던 점도 추가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실제 총칭 조건에서도 제시된 사진의 동물 수나 보이는 사진 속의 특징들을 위주로 설명한 발화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실험 1-1의 총칭 조건에서 관찰된 특징들은 비총칭적인 표현의 특징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이 실험 1-1에서는 총칭적인 표현의 특징을 확인하는 데 사진 자극이 주의를 끌고 발화의 내용을 주도할 수 있다는 단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여 총칭적인 표현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실험 1-2를 통해 보다 보편적 특징을 묘사할 수 있도록 한 상황을 제시하고 성인의 총칭 표현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실험 1-2

실험 1-2에서는 실험 1-1에서 유도에 실패한 총칭 표현의 통사 형태론적 요소들을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배경 정보 등이 담길 수밖에 없는 사진 자극을 사용하였을 때 화자들이 눈에 보이는 특징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던 실험 1-1의 결과를 참조하여 사진 자극 대신 동물을 대표하는 인형을 제시하고 해당 동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아이에게 설명하듯이 발화하도록 하여 총칭 표현이 보다 자연스럽게 유도되도록 하였다. 비총칭의 표현 유발은 실험 1-1에서 확인되었으므로 포함하지 않았다.

방 법

연구 대상

실험 1-2에도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대학생들 10명이 참가하였다. 사전에 동의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분석에는 10명(평균 21.5세, 남=4명) 모두 포함되었다.

실험 자극 및 절차

실험 자극으로 사진이 아니라 고양이와 기린 인형 및 아기 인형을 사용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제시되는 동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아기 인형에게 동물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참가자가 자극들을 보며 설명하는 동안에 발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특히, '이 동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되도록 주어와 서술어를 포함하는 완성된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설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 과

녹음된 자발적 발화를 전사하여 두 명의 채점자가 전사된 모든 내용을 확인하였다. 총 문장 수, 명제의 수, 주어의 사용유무, 주어에 사용한 조사의 유형, 총칭적인 의미 유무 등의 하위 요소들로 나누어 각 피험자가 발화한 내용들과 총칭적인 문장에서의 형태를 확인하였다. 기린과 고양이 두 조건 모두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속성을 설명하는 문장들 중에서 주어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하고 주어가 포함된 모든 문장들을 살펴보았다(총 100문장). 한 문장 안에 여러 명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어 또한 여러 개로 나타나기에 명제 수를 바탕으로 상대적인 비율을 계산하였다. 주어의 형태와 한정사의 유무에 따라 그 발화 빈도 및 비율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보편적인 속성을 일컬으며 주어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 명제 수는 총 74개였으며, 이 구문들에서는 모두 조사 '은/는'이 사용되었다. 반면에, 주격조사 '이/가'가 포함된 문장은 한 문장도 없었다. 이중에서 생물이 아닌 주어인 9개를 제외한 38개(51.4%)의 명제는 주어의 형태가 모두 무한정사(bare singular)였다. 한정사가 포함된 발화의 비율은 36.5%였는데, 이 중 지시 관형사와 명사가 함께 나타난 것이 '이 동물', '이

표 2. 실험 1-2의 성인의 총칭 표현에서 관찰된 형태론적 요소의 발화 빈도 및 비율

주어 형태 문법특징 세부분류		발화 빈도(개)	발화 비율(%)
무한정사		**38**	**51.4**
한정사		**27**	**36.5**
원형 단수	이 것	10	13.9
	이 동물은	8	11.1
	이 고양이(기린)	4	5.5
	기타(털은, 등)	5	6.9
기타(나, 우리 등)		9	12.2

것', 혹은 동물을 지칭하는 '애' 등으로 27개(36.5%)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하게 '이것'은 주로 동물의 이름을 설명해주기 위해 제시되었으며(10개, 13.9%), '이 동물은'이라고 하며 대상의 보편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경우는 8개(11.1%)였으며, '이 고양이는/기린은'라고 칭하여 한정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4개(5.5%)로 소수에 불과하였다(표 2 참조).

논 의

실험 1-2에서는 사진 자극 대신 동물을 대표하는 인형 자극의 제시를 통해 성인들의 총칭 표현 사용을 유도하고 발화된 표현의 통사 형태론적 특징을 다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박기성(2000)과 전영철(2003)이 제안한 것과 일관되게 총칭 표현에 사용된 종류 지칭 명사구에는 원형 단수(bare singular)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발화의 51.4%). 원형 단수와 함께 사용되는 조사의 형태에 대해서는 언어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본 실험에서는 모든 확인된 총칭 표현에서 '-은/는'이 사용되었고, '-이/가'는 한 차례도 관찰되지 않아 화제조사인 '-은/는'이 총칭 표현에 주로 사용되는 형태론적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된 종류 지칭 명사구에는 '이것, 이 동물'과 같이 지시 관형사가 포함된 표현도 있었으나 문맥을 살펴보면 이러한 표현은 지시 대명사로 고양이나 기린을 총칭하는 데 명사 대신 사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 대명사를 통해 종류를 지칭한 경우에도 명사가 '-은/는'과 결합하여 나타났다. 그리고 보편적인 특징을 일컫는 주어에 복수형태의 '-들'을 붙이지 않았으며 특별히 다른 특징을 보이는 문장들의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에서 종류에 대한 보편적인 속성을 설명하는 총칭적인 표현은 주로 단수형의 주어와 함께 조사 '-은/는'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며, 유유현(2010), 박기성(2000), 전영철(2003)의 언어학적 분석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1과 실험 1-2를 통해 얻은 총칭 명사구의 특징들을 활용하여 한국의 3세 아동들에게서도 총칭적인 표현과 비총칭적인 표현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 총칭적인 표현만 범주적 개념을 형성하는 데에 선택

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4세에게서 관찰된 정교한 총칭 추론 능력(Chambers, Graham & Turner, 2008)이 3세부터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두 개의 실험을 통해 증거의 강도와 예외적 사례의 포함 유무에 따른 3세 아동의 총칭 추론 능력을 검증하였다.

실험 2-1

본 연구에서는 실험 1-1과 실험 1-2에서 확인된 총칭문의 특징들을 사용하여 한국어 습득 3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총칭적인 문장과 비총칭적인 문장을 구분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Chambers, Graham과 Turner(2008)의 연구의 첫 번째 실험에서 4세를 대상으로 증거의 강도에 따른 총칭 추론 능력을 검증한 실험과 최대한 유사하게 설계하여 3세 아동에게 제시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실험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4곳을 방문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총 55명의 아동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 중 실험 진행을 중단하거나 실험자의 진행 실수가 있었던 아동 3명을 제외한 52명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만 3세 아동(평균 41.4개월, 범위 36-48개월) 52명(남아 27명)이 참여하였다.

실험 자극 및 절차

아이들이 접한 적이 없는 새로운 생물체를 소개하고자 Chambers, Graham과 Turner(2008)와 유사하게 점토로 제작한 인형을 만들어 사용하였다(그림 1 참조). 점토 인형들은 총 6 종류를 만들고, 무디, 뽀마, 피비, 파소, 유디, 뚜미와 같이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각 종류 내에는 모양은 동일하지만 색이 다른 구성원을 5개를 더 만들어 총 6 세트의 새로운 생물체를 제작하였다.

총칭성에 따른 실험 조건은 총칭 표현을 사용하여 특징을 설명하는 총칭 조건과 비총칭 표현을 사용하는 비총칭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제시되는 대상의 수에 따라 강한 증거 조건(5 마리 제시)/ 약한 증거 조건(1마리 또는 2마리 제시)으로 다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는 제시된 증거의 통계적인 수량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특성을 확장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실험은 참가 아동이 4개 중 한 조건(예, 총칭, 강한 증거 조건)에서만 반응하도록 피험자 간으로 설계하였다.

실험과정은 한 아이 당 준비 단계와 실험 단계로 진행되었다. 준비 단계에서는 아동이 조금씩 다른 예제가 한 범주(종류)에 속함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였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모양의 컵(2개)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명칭을 물어 모양과 색이 달라도 동일하게 컵으로 발화하고 모두 컵이라는 종류(범주)에 속함을 이해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실험 단계는 다시 소개 단계와 질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그림 1 참조). 소개 단계에서는 새로운 생물체를 보여주면서 종류의 명칭을 제시하고 조건에 따라 소개된 생물체의 속성을 총칭 표현 또는 비총칭 표현으로 소개

<table>
<tr><th>조건</th><th>소개 단계</th><th>질문 단계</th></tr>
<tr><td rowspan="3">강한 증거 조건
(제시자극: 5개 조건 간 동일)</td><td> </td><td> </td></tr>
<tr><td>총칭 조건) 애네들은 뽀마예요.
뽀마는 굴러 다녀요.</td><td rowspan="2">이 뽀마는 굴러 다닐까요?</td></tr>
<tr><td>비총칭 조건) 애네들은 뽀마예요.
이 뽀마들이 굴러 다녀요.</td></tr>
<tr><td rowspan="5">약한 증거 조건
(총칭 조건의 제시자극: 2개,
비총칭 조건의 제시자극: 1개)</td><td> </td><td> </td></tr>
<tr><td>총칭 조건) 애네들은 뽀마예요.
뽀마는 굴러 다녀요.</td><td>이 뽀마는 굴러 다닐까요?</td></tr>
<tr><td> </td><td> </td></tr>
<tr><td>비총칭 조건) 애는 뽀마예요.
이 뽀마가 굴러 다녀요.</td><td>이 뽀마는 굴러 다닐까요?</td></tr>
</table>

그림 1. 실험 2-1의 실험 단계 과정

하였다(예, 애네들은 파소예요. 애네들의 이름은 파소예요. 파소는(총칭)/이 파소들이(비총칭) 빨리 달려요.). 아이들이 대상과 속성을 연결하여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의 소개를 3번 반복하였다.

이러한 소개는 강한 증거 조건에서는 서로 다른 색깔이지만 동일한 모양의 생물체를 5개 제시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약한 증거 조건의 경우 총칭 조건에서는 총칭성을 나타내기 위해 2개를 제시하였고 비총칭 조건에서는 1개만을 제시하였다. 이는 Chambers, Graham과 Turner(2008)의 연구에서 영어의 총칭 명사구 표현인 복수형을 쓰기에 총칭 조건에서 자극을 2개 제시하게 된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하여 한국에서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소개 단계가 끝나면, 소개 단계에서 제시된 자극들과 모양은 동일하나 색이 다른 생물체를 보여주면서, 이전에 제시한 속성과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그렇다면 이 파소는 빨리 달릴까요?). 실험자의 질문에 대한 아이의 대답을 '예/아니오'로 확인하고,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하였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위의 네 조건들 중에서 유아는 1개의 조건에만 참여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각 조건 당 총 6번의 시행(6 종류의 생물체를 대상으로 한)을 제시하였다. 이 때 사용되는 표현은 실험 1-1과 1-2에서 확인한 총칭과 비총칭의 주요 특징들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총칭 문장은 대상에 해당되는 주어 앞에 어떠한 한정사도 없이 원형단수의 형태로 조사 '은/는'을 붙여 제시하였고, 비총칭 문장은 이와 반대로 주어 앞에 '이'라는 한정사와 '-들'이라는 복수 형태, 그리고 조사 '이/가'를 붙여 제시하였다.

결 과

각 조건의 긍정 답변 반응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총칭 조건과 제시되는 증거의 강도(대상 생물체의 제시 수) 조건에 따라 언급된 속성을 새로운 대상에 확장하는 반응(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한 반응)의 평균 백분율이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예비 분석 결과, 긍정적인 응답의 평균 반응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F = .199, p = .657) 추후 분석에서 성별은 제외하였다.

표 3. 3세 아동의 조건 별 긍정 답변 비율(%) 및 표준편차

	총칭 조건	비총칭 조건
강한 증거	78.8(10.6)	41.7(12.7)
약한 증거	62.8(12.4)	20.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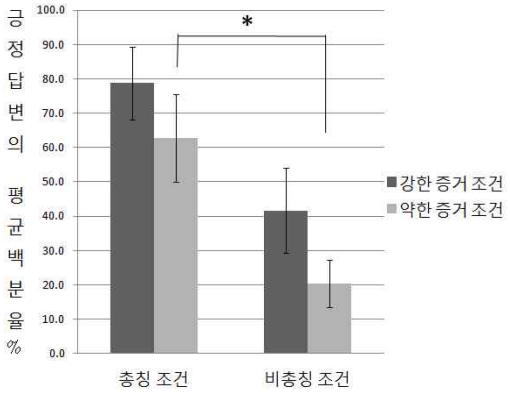

그림 2. 3세 아동의 조건 별 긍정 답변의 평균 백분율과 표준편차

조건에 따른 아동의 반응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총 6회의 검사 단계에서의 아동의 긍정적인 답변의 평균 백분율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총칭성 조건과 증거 강도 조건을 참여자 간 변인으로 한 2(총칭 조건, 비총칭 조건) x 2(약한 증거 조건, 강한 증거 조건) 이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총칭성 조건에 따라 총칭 조건과 비총칭 조건과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F(1,48)$ = 10.69, p < .01). 총칭 조건(n = 24)에서의 긍정 답변 평균 비율이 비총칭 조건(n = 28)에서의 긍정 답변 평균 비율보다 유의하게 높아 총칭적인 표현을 들은 경우에만 종류의 일반적인 속성을 동일한 범주의 다른 대상에게까지 확장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반면, 증거 강도 조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1,48)$

= 2.21, p = .15). 두 조건 간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F(1,48) = .22, p = .64). 뿐만 아니라 속성을 확장하는 비율은 총칭 조건에서는 경계선에서 유의하게 우연수준보다 높았으며, t(23) = 1.90, p = .069, 비총칭 조건은 우연 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t(27) = 3.37, p < .01.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모든 시행들에서 속성을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일관성도 분석하였다. 6시행 중에서 3시행 이상을 '예'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며 속성을 확장시켜 답하였으면 '확장자(extender)'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확장자(non-extender)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가 피험자가 참여한 총칭성 조건에 의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지 검토하고자 2(총칭 조건, 비총칭 조건) x 2(확장 유무) χ^2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조건에 따라 일관성 있게 확장을 하는 비율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χ^2(1, n = 52) = 9.25, p < .01. 총칭 조건에서는 참가자의 70.8%(24명 중 17명)가, 비총칭 조건에서는 28.6%(28명 중 8명)가 새로운 대상이 나왔을 때 일관성 있게 속성을 확장하는 반응 패턴을 보여 총칭 조건이 참가 아동에게서 대체로 일관적인 속성 확장의 반응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논 의

실험 2-1에서는 한국 3세 아동이 새로운 종류의 대상이 지닌 속성을 유추함에 있어 총칭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총칭성의 활용이 표현과 함께 제시되는 대상의 수에 영향을 받는지도 함께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3세는 4세와 마찬가지로(Chambers, Graham & Turner, 2008) 함께 제시되는 대상의 수량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대상에 대한 속성이 총칭적으로 제시되었을 때에 이를 범주의 보편적, 공통적인 속성으로 추론하고 이를 동일 범주 내 다른 구성원에 확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Chambers, Graham과 Turner(2008)의 연구에서 관찰된 4세의 결과와 유사하여 4세들 뿐 아니라 3세에게서도 총칭성을 이해하고 총칭 표현을 통해 새로운 종류에 대한 보편적 속성을 추론해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2-2에서는 실험 2-1의 실험 과제에서 종류의 속성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예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과연 3세에서도 예외를 포함하는 총칭성의 이해가 발달되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하였다.

실험 2-2

범주의 개념에는 그에 속한 실례(examplar)들의 공통적이고 보편적 속성이 존재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포함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새는 날개가 있고, 날 수 있지만 타조나 펭귄은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라는 범주에 대한 공통 속성을 추출하고 표상한다(Murphy, 2004). Chambers, Graham과 Turner(2008)의 연구에서는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4세 아동에게 범주의 속성을 제시하고 예외적인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을 때에도 아동이 총칭 추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실험 2-2에서는 이러한 총칭 추론의 능력이 만 3세, 그리고 한국어 습득 아동에서도 출현하는 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6곳을 방문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총 27명의 3세 아동(평균 41.9개월, 범위 37-47개월, 남아 13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 중 실험 진행을 중단하거나 실험자의 진행 실수가 있었던 아동 2명을 제외한 25명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실험 자극 및 절차

실험 2-2의 실험 자극은 실험 2-1에서 사용한 자극과 동일한 자극들을 사용하였다. 실험 2-1에서 제시된 대상의 수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에 본 과제에서는 제시되는 예시의 수를 최소의 수로 사용하였다. 총칭 조건에서 최소 2개의 자극을 필요로 하기에 비총칭 조건에서도 2개의 자극으로 통일하여 진행하였다. 조건은 피험자 간으로 총칭 조건과 비총칭 조건을 나누어 진행하였다. 실험 과정은 실험 2-1과 유사하였고, 예외 단계만 하나 더 추가하였다(그림 3 참조). 준비 단계는 실험 2-1과 마찬가지로 진행되었으며, 실험 단계에서는 소개 단계에서 색만 다른 동일한 모양의 대상을 2개 먼저 보여주며 총칭적이거나 비총칭적인 문장을 들려주었다(얘네들은 파소예요. 얘네들의 이름은 파소예요. 파소는/이 파소들이 빨리 달려요.). 다음의 예외 단계에서는 다른 색의 대상을 보여주며, 예외적인 예시를 소개하였다(이 파소는 빼야해요. 이 파소는 빨리 달리지 않아요.). 마지막 질문 단계에서는 또 다른 색의 대상을 보여주며 이전에 설명한 생물체의 속성을 새로운 대상에게도 확장을 시켰는지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였다(그렇다면 이 파소는 빨리 달릴까요?).

유아는 1개의 조건에만 참여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각 조건 당 총 6번의 시행(6 종류의 생물체를 대상으로 한)을 제시하였다. 실험자는 각 질문에 대한 아이의 대답을 코딩하였다. 실험 2-2에서는 실험 2-1과 동일하게 실험자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table>
<tr><th>소개 단계</th><th>예외 단계</th><th>질문단계</th></tr>
<tr><td> </td><td> </td><td> </td></tr>
<tr><td>총칭 조건) 얘네들은 피비예요. 피비는 우유를 마셔요.</td><td rowspan="2">그런데 이 피비는 빼야 해요. 이 피비는 우유를 마시지 않아요.</td><td rowspan="2">이 피비는 우유를 마실까요?</td></tr>
<tr><td>비총칭 조건) 얘네들은 피비예요. 이 피비들이 우유를 마셔요.</td></tr>
</table>

그림 3. 실험 2-2의 실험 단계 과정

1점을 부여하였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 과

총칭 조건에 의한 대상의 속성을 확장하는 평균 백분율을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예비 분석 결과, 긍정적인 응답의 평균 반응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F < .02$, $p = .89$). 총 6회의 검사 단계에서의 아동의 반응 결과들의 평균(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들의 백분율)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총칭성 조건(총칭 조건, 비총칭 조건)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23) = 1.52$, $p = .14$. 그러나 속성을 확장하는 비율이 총칭 조건에서만 유의하게 우연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t(11) = 2.33$, $p < .05$. 반면 비총칭 조건에서는 우연 수준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12) = .24$, $p = .82$.

실험 2-1과 동일하게 속성을 확장시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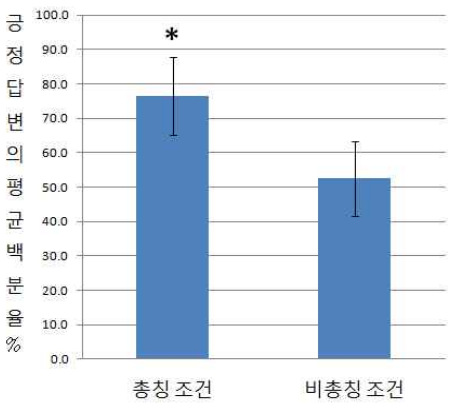

그림 4. 3세 아동의 조건 별 긍정 답변의 평균 백분율과 표준편차

에 대한 아동의 일관성도 분석하였다. 6시행 중에서 50% 혹은 그 이상을 '예'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며 속성을 확장시켜 답하는 경우를 '확장자'로 간주하였다. 일관된 속성 확장자의 비율은 총칭 조건에서는 83.3%(12명 중 10명), 비총칭 조건에서는 53.8%(13명 중 7명)로 나타났다. 피험자 간 총칭성 조건과 확장 유무에 따라 2(총칭 조건, 비총칭 조건)x2(확장 유무) 카이자승 분석을 한 결과, 조건에 따라 일관성 있게 확장을 하는 비율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chi^2(1, n = 25) = 2.49$, $p = .11$.

논 의

실험 2-2에서는 한국 3세 아동이 새로운 종류의 대상의 속성을 유추함에 있어 속성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대상을 보여주었을지라도 총칭적인 표현을 들은 경우에는 종류의 속성을 확장하여 이해하고 범주로 인지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실험 2-2의 결과, 3세는 예외적인 예시가 제시되었을 때에는 총칭적인 표현을 비총칭적인 표현과 구별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총칭적인 표현과 비총칭적 표현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Chambers, Graham과 Turner(2008)의 연구에서 총칭/비총칭 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결과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칭적 표현을 듣는 총칭 조건에서만 새로운 대상의 속성을 확장하는 비율이 우연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비총칭 조건에서는 속성을 확장하는 비율이 우연 수준에 그쳤다. 이는 3세 아동은 총칭적인 표현을 통해서

만 종류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 속성을 지니지 않는 예외도 포함하며 총칭적인 표현을 들려준 이후에 예외를 보여주더라도 종류의 다른 대상에게 동일한 속성을 확장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지지하여 준다고 하겠다. 즉, 두 조건 간의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기에 비총칭 조건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총칭적인 표현을 들은 경우에만 같은 범주 안의 대상에게는 속성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경향성이 나타난 것이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이 총칭 명사구를 통해 종류에 대한 보편적인 속성을 학습하여 새로운 종류의 개념을 형성하며 새로운 대상을 접하였을 때에도 종류의 범주 안에 속하는 동일한 속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총칭 추론 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성인을 통해 총칭적인 표현의 특징을 살피고 이를 사용하여 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총칭적인 표현에서만 종류의 속성을 다른 대상에게도 일반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지를 실험적으로 살펴보았다.

실험 1-1과 실험 1-2의 결과, 한국 성인 발화를 통해 총칭 명사구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류의 일반적인 속성을 일컫는 총칭성을 직접 발화하는 문장을 분석하여 확인하였을 때에 다른 특징들보다 많이 보이는 형태는 원형 단수 주어와 조사 '은/는'의 결합 형태였다. 박기성(2000)과 전영철(2003)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에서 총칭 명사구의 주요한 특징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복수 접미사인 '-들'도 총칭적인 표현으로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 곽은주(2002)의 입장과는 달리 복수 접미사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전영철(1997)에서 총칭 명사구를 표현할 때의 특징과 유형으로 포함한 주격 조사 '이/가'는 발화된 문장들에서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실제로 한국에서 종류에 대한 보편적인 속성을 말하는 총칭 명사구의 통사 형태적 특징으로는 원형 단수 주어와 조사 '은/는'이라고 볼 수 있다.

실험 2-1과 실험 2-2에서는 한국 3세 아동들이 총칭성 구별 과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만 3세 아동들에게서도 이미 충분하게 총칭성 구별 능력이 보일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유아들에게서도 어린 연령부터 총칭성을 구분하는 것과 더불어 총칭문을 통해서 습득한 종류의 속성을 다른 대상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Chambers, Graham과 Turner(2008)의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듯이, 본 연구에서도 제시되는 증거들의 물리적인 수량이 대상의 속성을 일반적으로 연결시키는 데에 있어서 주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지하였다. 총칭성을 구분함에 있어서 보이는 자극들의 수가 크게 영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3세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을 때에도 총칭적 표현을 구별해내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3세 아동들도 총칭적 명사구를 접한 경우, 속성을 종류에 대한 보편적인 속성으로 인지하고 새로운 대상에게도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세 아동에 비해 3세 아동에 대한 총칭성 연구가 미흡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3세 아동의 총칭성 구별 능력과 대상의 속성을 유추함에 있어 총칭성을 이용하는 능력이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예외적인 예제가 포함된 상황에서의 총칭 추론은 4세의 능력에 비해서는 아직 확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총칭 조건에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비총칭 조건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총칭 조건에서의 응답은 우연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 참여자의 수를 늘려 추후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자발적인 발화를 통해 주로 사용되는 총칭적인 표현의 통사 형태적인 특징은 단수 원형 형태와 조사 '은/는'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총칭성 구별 능력이 수적 제약과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언어학적 분석에서 그치던 총칭적인 표현의 특징들을 실제로 확인하고 증거의 정도나 예외라는 방해가 있을지라도 총칭성을 이해해 종류의 속성을 학습하고 이 속성을 종류라는 한 범주 안의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인 속성으로 적용시켜 새로운 대상을 유추하는 능력이 한국 3세 아동들에게서도 나타나 총칭성 이해 및 구별 능력의 발달 양상을 확인하였으나, 2세부터 총칭적인 표현의 특징들을 발화하기 때문에 더 어린 연령에게서도 총칭성을 이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곽은주 (2002). Structural relations in korean discourse generics. 한국언어학회, 27(1), 25-46.

권도하, & 정분선 (1999). 2~5세 유아의 복문 발달에 관한 연구. 言語治療研究, 8, 157-173.

김순자, & 김명희 (2005). 일반 논문: 지시어 "이", "그", "저"의 지시 기능 습득 과정. 텍스트언어학, 19, 63-81.

김일웅 (1982). 지시의 분류와 지시사 '이, 그, 저'의 쓰임. 한글, -, 53-88.

박기성 (2000). 영어화 한국어의 총칭성에 관한 대조 분석. 코기토, 55, 271-302.

유유현 (2010). 총칭성과 정보구조. 텍스트언어학, 28, 129.

전영철 (1997). 한국어 총칭문의 유형. 언어학, 21, 289-303.

전영철 (2003). 한국어 총칭표현들의 의미론적 분석. 언어학, 37, 267-295.

전영철 (2004). 한국어의 복수성과 총칭성/한정성. 언어와 정보, 8, 27-45.

조명한 (1982). 한국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서울: 서울大學校.

Chambers, C., Chambers, S., Graham, J., & Turner. (2008). When hearsay trumps evidence: How generic language guides preschoolers' inferences about unfamiliar things.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23*, 749-766.

Cimpian, A., Cimpian, E., & Markman. (2008). Preschool children's use of cues to generic meaning. *Cognition, 107*, 19-53.

Gelman, S. A. (2004). Learning words for kinds: Generic noun phrases in acquisition. *Weaving a Lexicon*, 445-484.

Gelman, S. A., Star, J. R., & Flukes, J. (2002).

Children's use of generics in inductive inference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3*, 179-199.

Gelman, S. A., Goetz, P. J., Sarnecka, B. W., & Flukes, J. (2008). Generic language in parent-child conversations. *Language Learning and Development, 4*, 1-31.

Gelman, S. A., & Tardif, T. (1998). A cross-linguistic comparison of generic noun phrases in english and mandarin. *Cognition, 66*, 215-248.

Gelman, S. A., & Raman, L. (2003). Preschool children use linguistic form class and pragmatic cues to interpret generics. *Child Development, 74*, 308-325.

Gelman, S. A., & Bloom, P. (2007).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understanding of generics. *Cognition, 105*, 166-183.

Graham, S., Nayer, S., & Gelman. (2011). Two-year-olds use the Generic/Nongeneric distinction to guide their inferences about novel kinds. *Child Development, 82*(2), 493-507.

Hollander, M. A. (2002). Children's interpretation of generic noun phrases. *Developmental Psychology, 38*, 883.

Lyons, J. (1977).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Murphy, G. L. (2004). *The big book of concepts.* Cambridge, Mass.: MIT Press.

Prasada, S., & Prasada. (2000). Acquiring generic knowledg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4*, 66-72.

1차원고접수 : 2014.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4. 03. 06.
최종게재결정 : 2014. 03. 10.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4, Vol. 27, No. 1, 179-196

Making generic inferences from generic expressions among Korean 3-year-olds

Jieun Bang Youngon Choi

Chung-Ang University, Psychology

Generic expressions (e.g., "Birds have wings") describe different general properties and help children acquire knowledge of a given category. Although prior studies have suggested that generic inferences become more sophisticated around 4 years of age, no studies have tested younger age groups, and the findings have largely been limited to children in English-speaking communities. The present study examined Korean-speaking 3-year-olds' abilities to make inferences based on generic expressions. First, we elicited and analyzed Korean-speaking adults' utterances that described general properties of an animal category, and found that the most widely utilized generic noun phrases (NPs) of Korean were bare singulars, with the topic marker *eun/nun* accompanying these NPs. We then presented Korean 3-year-olds with generic expressions about properties of novel animals using these morpho-syntactic features, and observed the extent to which they were willing to extend the property to a novel instance of the given category. Specifically, we examined whether 3-year-olds can make generic inferences regardless of the strength of evidence (e.g., number of exemplars), or when an exception was introduced. We found that 3-year-olds can make generic inferences regardless of evidence strength, and distinguish genericity from nongenericity despite the presence of an excep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sophisticated abilities to make generic inferences are present as early as 3 years old, and the development of inferential abilities is universal rather than language- or culture-specific.

Key words : generic expression, genericity, language development, concept development, generic inferences